

위태로운 ‘대한민국호’ 명운의 키 잡았다



마친 뒤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박근혜 국정농단서 존재감 발휘
잇단 사법리스크·흉기 피습 등
수차례 위기 딛고 정권 재창출

□ 코로나19 시기에는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 실험적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도 굳혔다.

이재명이 중앙 정치 무대에 이름을 알린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치에 따라 신속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등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은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안희정에 이어 ‘의미 있는 3위’를 기록했다. 이때 정치 체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정치 인생의 위기를 맞았으나,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무죄를 확정받으며 고비를 넘겼다.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벌인 민주당 경선은 ‘명낙 대전’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치열했다.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형수 욕설 파문, 기본소득 등 급진 정책에 대한 당내 반발 등 ‘악재’가 쌓였고, 경선 후유증으로 본선에서 ‘원팀’이 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0.73% 차이로 석패했다.

이재명은 대선 패배 후 정치적 퇴진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당내 권력 중심으로 이동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 내 ‘반명’ (반이재명)계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기존의 정치 문법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선에 패한 정치인들이 일정 기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재명은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은 2023년 2월과 2023년 9월 두 차례 검찰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의 당사자가 된다. 2023년 2월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으나, 9월에는 가결돼 정치 여정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사 회생한다.

무수한 비판 속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지내며 ‘담금질’의 시간을 거친 이 후보는 이 기간 흉기 피습 사건을 겪는 등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2024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며 당내 입지는 더욱더 굳건해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6·3 대선’ 민주당 경선에선 89.77%란 압도적 득표율로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이 2025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은 단순한 인기나 팬덤 효과를 넘어 총선 성과에 기반한 리더십과 현실적인 전략 선택의 결과라는 평가다.

여기에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오랜 기간 그를 끈질기게 괴롭힌 사법리스크도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은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출마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흡수저 소년공 출신이 이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될 지 기대된다.

변호사 시절이던 1990년 셋째 형수의 소개로 숙명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부인 김혜경 여사를 만나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서울=김현수 기자



구치소 나서는 이재명

2023년 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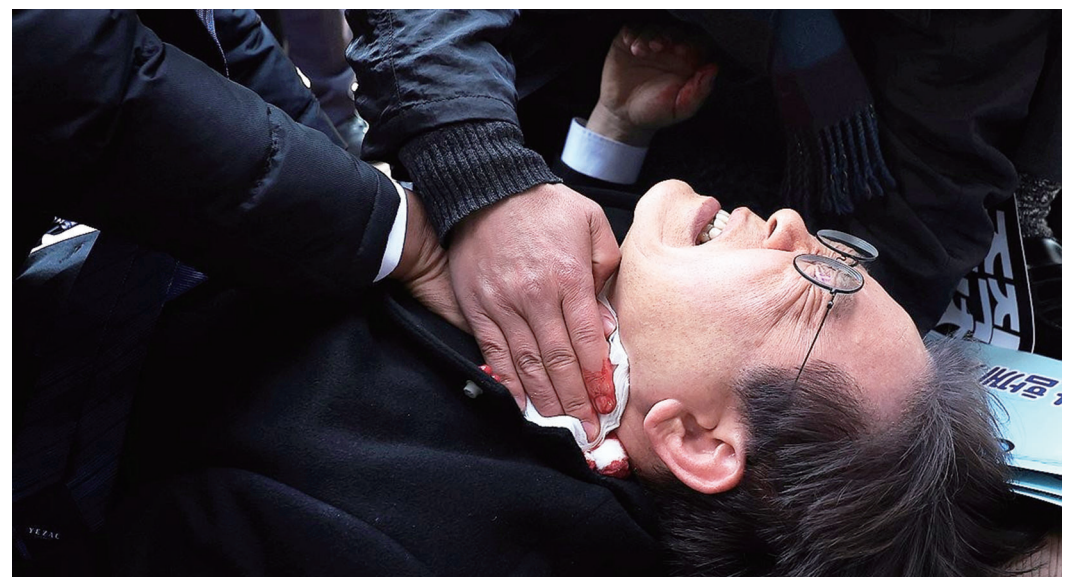
공동취재



이재명의 굵은 팔

지난 2017년 8월 ‘이재명의 굵은 팔’ 출판 간담회에서 출간 소감을 밝히던 중 소년공 시절 사고로 굵은 왼쪽 팔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 피습 당시 이재명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습격 당한 모습.

연합뉴스

www.goldclass.co.kr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